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과의 관계

차남현 · 김윤경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Nam Hyun Cha, Yun Ky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Gimhae,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persona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297 subjects aged between 18 and 28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wit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March 2 to 25, 201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Win 15.0. **Results:** Differences i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I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ccepta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record of their children. In maternal rearing attitudes,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and patern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al education level. All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denia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grade, parental economic status, blood type, two income fami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acceptance and personality of their children except patern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denial. 26.3% of variance in personality was explained by maternal rearing attitude perceived acceptance only.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ersona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developing more specific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attitudes programs.

Key Words: Parenting; Rearing; Personality

국문주요어: 부모, 양육, 성격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특성과 행동양식을 가정이라는 교육의 장에서 부모를 통해 기본지식 및 정서를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Cheo, 2004)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모델이 되며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격 및 인격의 바탕을 구축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일상생활, 즉 올바른 양육태도 및 가정환경은 자녀들의 인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가정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일차적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의 질에 대해 강조하였다(Freud; 1910, 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자녀가 성숙한 개인으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20여 년간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보호와 안전, 건전한 발달을 위해 물리적, 인적,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확장시킴에 따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Lee, & Park, 1988).

Corresponding author:

Yun Ky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60 Samgye-dong, Gimhae 621-748, Korea
Tel: +82-55-330-1026 Fax: +82-55-330-1142 E-mail: kyk4689@hanmail.net

투고일: 2011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

성격이란 어떤 개체가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반응의 일관성, 고유성,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관, 양육태도, 자녀 발달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양육태도가 개념적으로는 자녀의 흥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태도는 문화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부모 양육태도나 유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유아기나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Son, 2002), 대학생, 특히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 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인간답고 질이 높은 간호를 베풀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질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과 정서적 능력에 대한 간호사의 자질이 계발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돌봄은 돌보는 사람의 성품과 자질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간호의 전문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이 습득될 수 있다(Jang et al., 2009). 예비 간호사의 정서적 능력의 바탕이 되는 성격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형성되었을 때, 대상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정화 및 질병의 완화,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자녀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방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 대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 대학생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의 편의 추출에 의하여 S시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이 10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Rohner (1980)가 개발한 부모양육 측정도구를 Kim (1988)이 번안한 것으로 부모 양육태도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60 문항 중 Kwon (1993)이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용-거부차원의 30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말한다. 본 문항은 수용(애정의 이해, 존중 등으로 표시되는 수용적 태도)에 관한 15문항과 거부문항(무시, 학대, 무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거부적 태도)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수용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이 각각 15-6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거부적 양육집단에서 부정문항의 점수는 역으로 계산하였다. Kwon (1993)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α = .87,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α = .85,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α = .83이었다.

2) 성격

성격은 각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천적, 후천적 행동 특성을

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이던스에서 개발한 Multi-dementional Learning Strategy Test (MLST) 학습전략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 한 것을 말한다. MLST 학습전략검사는 기존의 학습방법 진단검사를 업그레이드한 검사로 성격적 특성, 정서적 특성, 동기적 특성, 행동적 특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성격적 특성(효능감, 자신감, 실천력)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 있다 생각 되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MLST 학습전략검사는 Likert식 평점척도를 사용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는 백분위로 40-60%가 대부분이고 70% 이상은 높은 편, 30% 이하는 낮은 편에 속한다. 총 188문항에 검사시간은 40분이 소요되며 신뢰도 검증결과 검사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토콜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이해시켜 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50부 배부하여 320부가 회수되었고(91.4%),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7부(84.9%)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와 성격 간의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과 잔차 분석을 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가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도(VIF)도 1.0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의 확인 후 잔차 분석을 위

해 Durbin Waston 검정을 한 결과 2.0에 가까운 1.638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호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할 수 있어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1-4학년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평균 20.76세로 18-28세의 범위를 나타냈다. 학교 성적은 대부분 중간 성적이었으며(52.6%), 가족서열은 첫째가 160명(54.0%), 막내 93명(31.4%), 중간 36명(12.2%)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교가 137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형은 A형이 119명(40.0%), B형 77명(25.8%), O형 71명(24.0%), AB형 30명(10.2%) 순이었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 280명(94.2%)이었으며, 부모와 2세대로 사는 학생이 236명(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이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219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181명(60.8%)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연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 정도는 평균 43.53점이었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점수는 평균 47.04점인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는 아버지가 평균 27.25점, 어머니가 평균 27.14점이었다. 이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성격점수는 평균 51.8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과의 차이

부모 모두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녀의 학교성적으로 나타났다($F = 4.70, p < .05, F = 4.82, p < .01$). 즉, 학교성적이 높거나 중간일수록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의 교육수준이었는데($F = 6.91, p < .001$), 이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보다 대학교 이상 졸업자인 경우가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만 유의한 항목은 경제적 상태이었다($F = 5.84, p < .01$).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이거나 낮은 수준보다 더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부모 모두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성별($t = 3.56, p < .001, t = 2.93, p < .01$), 학년($F = 6.06, p < .01, F = 3.39, p < .05$), 경제적 상태($F = 4.23, p < .05, F = 6.66, p < .01$)이었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97)

Variables		n (%)
Gender	Male	21 (7.1)
	Female	276 (92.9)
Grade	1	90 (30.0)
	2	65 (22.0)
	3	79 (26.7)
	4	63 (21.3)
School record	High achieving	82 (27.7)
	Middle achieving	156 (52.6)
	Low achieving	59 (19.7)
Rank between brothers	Firstborn	161 (54.0)
	Middleborn	36 (12.2)
	Lastborn	93 (31.4)
	Single	7 (2.4)
Religion	Catholic	38 (12.9)
	Buddhism	47 (15.9)
	Christian	75 (25.1)
	None	137 (46.1)
Blood type	A	119 (40.0)
	B	77 (25.8)
	AB	30 (10.2)
	O	71 (24.0)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 Middle school	17 (5.8)
	High school	150 (50.4)
	≥ University	130 (43.8)
Cohabitation	Parents	236 (79.4)
	Single parents	15 (5.0)
	Parents + grandparents	20 (6.8)
	Others	26 (8.8)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34 (11.6)
	Live in average	219 (73.7)
	Live in bad	44 (14.7)
Two income family	Yes	181 (60.8)
	No	116 (39.2)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항목은 혈액형이었으며($F=3.20, p<.0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항목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2.77, p<.01$). 즉, 여자보다 남자가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4학년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대상자보다 유복하거나 중간이라고 느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형이 AB형이 A형보다 부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느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더 부정적으로 양육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학교성적이었다($F=9.61, p<.001$). 학교성적이 좋거나 중간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성격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Score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ubject's Personality

Variables	Range (score)	Mean ± SD
Fa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23-60	43.53 ± 9.52
Mo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25-58	47.04 ± 8.40
Fa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17-38	27.25 ± 6.10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18-42	27.14 ± 5.79
Subject's personality	32-77	51.80 ± 10.15

4.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격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r=.36, p<.01$), 모($r=.51, p<.001$)와 유의하게 순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r=-.22, p=.126$)와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26.3%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용적, 부정적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간호 대학생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이들의 성격적인 문제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 대상자로서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양육태도는 수용적이라는 대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보통 이상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가정적 환경이 부모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경제적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Hurlock, 1981; Jung, 1995),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심을 부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과(Guk, 2008)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녀의 학교성적이었다. 즉, 학교성적이 높거나 중간일수록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고

Table 3. Differences i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97)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Fa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Mo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Fa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Persona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45.52±8.07	0.16	49.63±6.27	0.69	29.71±7.04	3.56	29.05±8.32	2.93	45.00±2.83	-1.08
	Female	45.18±9.38	(.871)	48.31±8.12	(.491)	24.99±5.75	(<.001)	25.00±5.61	(.004)	52.80±10.07	(.284)
Grade	1	45.50±8.11	1.12	48.56±7.01	1.49	25.26±5.03	6.06	25.35±6.01	3.39	55.76±9.24	1.17
	2	43.41±9.65	(.344)	46.71±8.89	(.223)	27.61±6.69	(<.001)	27.05±5.74 ^a	(.019)	53.33±9.44	(.032)
	3	45.52±8.67		48.56±7.88		25.25±6.06		24.99±5.66		54.70±9.04	
	4	46.24±10.97		49.70±8.44		23.18±5.58		23.72±5.83 ^b		59.33±12.39	
School record	High achieving	46.81±8.93	4.70	49.91±8.16	4.82	24.62±5.91	2.74	24.96±6.82	1.14	58.93±9.97	9.61
	Middle achieving	45.60±8.66	(.010)	48.68±7.35	(.009)	25.19±5.78	(.066)	25.11±5.43	(.322)	52.91±9.04	(.000)
	Low achieving	41.98±10.77		45.61±9.10		27.02±6.60		26.40±5.99		44.93±5.94	
Rank between brothers	Firstborn	45.76±9.24	1.17	48.92±7.50	0.99	24.99±6.08	0.59	24.61±5.77	1.59	52.27±8.20	1.30
	Middleborn	43.33±9.44	(.320)	47.82±8.39	(.403)	26.06±5.71	(.621)	26.42±6.15	(.190)	53.73±11.21	(.285)
	Lastborn	44.70±9.04		47.45±8.38		25.53±5.68		25.81±5.69		54.00±12.34	
	Single	49.33±12.39		51.29±12.41		27.33±9.09		27.14±8.68		39.50±.71	
Religion	Catholic	47.73±8.99	1.18	49.58±8.03	0.36	23.57±4.99	0.95	24.11±5.02	0.97	43.75±6.75	0.86
	Buddhism	44.84±9.21	(.322)	48.49±7.27	(.842)	25.63±6.17	(.443)	24.65±4.92	(.420)	52.50±9.77	(.493)
	Christian	45.62±8.67		48.55±7.63		25.71±6.15		26.10±6.78		54.30±9.39	
	None	44.19±9.58		47.97±8.37		25.55±6.08		25.30±5.93		53.13±10.28	
Blood type	A	45.23±9.21	1.34	48.97±7.53	0.66	24.51±5.36	3.20	25.00±5.97	1.42	53.50±9.73	0.49
	B	46.32±9.99	(.264)	48.65±9.07	(.580)	25.01±6.09	(.024)	24.97±6.09	(.244)	49.93±8.39	(.689)
	AB	42.30±8.63		46.83±6.58		25.67±6.37		27.33±5.59		54.83±13.96	
	O	45.27±8.81		47.97±8.20		28.17±6.03		25.02±5.57		53.07±10.60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 Middle school	44.56±7.01	6.91	47.94±7.18	1.76	27.31±9.08	1.25	25.07±6.20	0.65	49.50±14.85	0.66
	High school	43.28±8.89	(.001)	47.54±7.99	(.174)	25.55±5.33	(.293)	25.68±5.95	(.581)	51.55±11.17	(.521)
	≥ University	47.39±9.55		49.37±8.14		24.93±6.21		24.93±5.85		54.81±6.57	
Cohabitation	Parents	45.53±9.19	0.51	48.34±7.94	0.65	25.10±5.68	0.71	25.04±5.60	2.45	52.05±9.90	2.08
	Single parents	45.77±10.65	(.671)	48.50±9.77	(.585)	26.38±7.09	(.554)	28.07±6.39	(.061)	46.40±8.38	(.116)
	Parents + grandparents	44.26±9.05		50.67±6.87		26.00±6.86		23.47±3.71		59.75±5.80	
	Others	43.60±9.79		47.28±8.51		26.63±7.37		26.96±8.33		62.00±14.14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47.47±10.16	2.25	49.85±8.19	5.84	24.53±5.57	4.23	23.61±4.66	6.66	57.50±10.61	0.35
	Live in average	45.24±9.12	(.110)	48.94±7.52	(.003)	25.03±5.58	(.015)	24.99±5.69	(.002)	52.67±10.05	(.71)
	Live in bad	42.90±9.30		44.61±9.16		27.83±7.63		28.12±6.81		51.23±10.30	
Two income family	Yes	45.78±8.62	0.89	49.05±7.62	1.25	25.08±5.67	-0.48	24.42±5.08	-2.77	53.90±10.51	0.79
	No	44.76±10.07	(.378)	47.83±8.50	(.211)	25.42±6.14	(.633)	26.38±6.73	(.006)	51.61±8.44	(.43)

Table 4. Correlation of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Attitude

Variables	1 r (p)	2 r (p)	3 r (p)	4 r (p)	5 r (p)
1. Fa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1.00				
2. Mo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75 (<.001)	1.00			
3. Fa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61 (<.001)	-.41 (.003)	1.00		
4.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32 (.026)	-.50 (<.001)	.67 (<.001)	1.00	
5. Subject's personality	.36 (.010)	.51 (<.001)	-.22 (.126)	-.21 (.147)	1.00

느끼고 있었다. 이 결과는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부모가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Yun, 1995).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Lee, 1983) 생각된다. 즉,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을 주므로 (Lee, 2002; Schaefer, & Edgerton, 1985) 자녀는 부모에게

서 느끼는 안정감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기 (Kim, 2000) 때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보다 대학교 이상 졸업자인 경우가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ersonality

Variables	B	SE	β	t	Adjusted R ²	F
Constant	25.021	15.184		1.648	.263	3.742
Fa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262	.303	-.241	-0.868		
Mother's rearing attitude (Acceptance)	.845	.303	.687	2.681*		
Fa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331	.405	-.196	-0.817		
Mother's rearing attitude (Rejection)	.314	.385	.182	0.816		

* $p < .05$.

비례함을 의미하며(Guk, 2008),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심을 부여하는 경향이 많기(Hurlock, 1981; Jung, 1995) 때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사회화, 통솔자, 훈육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적 능력이 자녀의 생각, 감정 등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회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만 유의한 항목은 경제적 상태이었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이거나 낮은 수준보다 더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에게 자신감, 만족감, 풍부한 경제적 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자녀의 능력과 포부,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성을 지지하는 흥미있는 사실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는 가정을 통솔하는 존재로 교육적 수준을 갖추어야 자녀의 긍정적 사회화 발달에 영향을 주며(Yun, 1995), 어머니는 자녀의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존재로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어머니를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뒷받침에 의해 형성된 수용적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긍정적인 성격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의 사회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어머니는 경제적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주의할 점은 부모는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 과잉의존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부모 모두에게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Kim & Jeon, 2009) 애착수준이 더 높기(Ahn & Lee, 2009) 때문으로 생각하며, 여학생이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고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학년에 비해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학년이 2학년보다

인생 연륜이 있는 만큼 부모에 대해 이해력과 포용력 있게 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대상자보다 유복하거나 중간이라고 느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용적 양육태도와 같은 결과로 나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들(Guk, 2008) 지지하는 결과이다.

혈액형 AB형이 A형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B형의 성격이 기본적 동요성이 있고 끈기가 부족하며 자기주장이 강하기(Kim, 2004) 때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맞벌이를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양육태도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연구들(Guk, 2008)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은 학교성적이 좋거나 중간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좋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격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Anderson, 1991),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Ehrman & Oxford, 1995).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격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모와 긍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아버지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Guk, 2008; Lee, 2002; Park, 2001; Schaefer, & Edgerton, 1985; Yun, 1995) 지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자아형성, 긍정적 정서발달 및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올바른 성격형성을 위해 부모는 양육태도를 일관적이고 수용적으로 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및 인성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성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이었으며, 설명력은 26.3%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자녀의 성격발달에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 중 특히, 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고

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부모의 양육태도라도 자녀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양육태도로 비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정하는 자세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밀감을 증가시켜 사회에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는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간적이고 질이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질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 수용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기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는 자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하도록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을 확인하고 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양육태도는 대부분이 수용적이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보통 이상이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상자의 성격 차이 결과,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태도가 수용적으로 인지한 유의한 항목은 자녀의 학교성적이었고, 아버지에 대해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느낀 경우 유의한 항목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인지한 경우 유의한 항목은 경제적 상태이었다. 또한, 부모 모두에게 양육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인지한 것은 성별, 학년별, 부모의 경제적 상태, 혈액형, 맞벌이 유무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학교성적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격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부모와 긍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아버지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성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는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 변수 단독이었으며, 설명력은 26.3%이었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와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그 중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거부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의 양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수용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아버지는 부정적인 자세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만큼,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건전한 양육태도를 견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국가는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 경제적 측면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여러 측면(분노유형, 효능감, 정서, 건강통제위 등)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건전한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H. W., & Lee, J.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 77-88.
- Anderson, N. J.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tegy use in second language reading and test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5, 460-472.
- Cheo, G. O. (2004). *Effect of parents' raising attitudes on their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Ehrman, M., & Oxford, R.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d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 67-79.
- Freud, S. (1910).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1, 181-218.
- Guk, S. M. (2008). *Effect on child's personality of the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Hurlock, E. B. (1981).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Jang, G. S., Lee, M. H., Kim, I. S., Hong, Y. M., Ha, N. S., Kong, B. H., et al., (2009). *Ethics and professional of nursing*. Hyunmoonsa: Seoul
- Jung, S. Y. (1995).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G. S., & Jeon, Y. S.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 differentiation on an adolescent's anxie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79-94.
- Kim, K. S. (2004). *The influence of competition anxiety affected to the games according to the type of characters in high school ssireum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 Kim, M. H. (2000). *Comtemporary society and parent education*. Seoul: Education Academy.
- Kim, O. J. (1988). An analysis of cognition - emotion causality based o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ing Administration*, 6, 73-100.
- Kwon, S.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rearing experience and ego-identity formation and attrib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Lee, S. H. (2002). *The effect that the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level in Christian families affects the attitude bringing up their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Lee, S., & Park, S. Y. (1988).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 Studies*, 9, 61-94.
- Lee, W. Y. (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child - 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 101-140.
- Park, M. J. (2001).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1-21.
-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287-318). Hillsdale, NJ; Eelbaum.
- Son, G. S. (2002).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child'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Yun, B. D. (1995). *Effect of 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Yun, B. D. (1995). *The effect of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